

“난민피해, 車 사고보다 적어”… 설부른 혐오보단 교감을

**비정상 한국경제
‘아노말리’ 증후군**

⑦ 제노포비아 해법은?

난민 인권 설문조사 결과
이슬람계 난민 부정적 시각 58.2%
소울푸드로 난민여성 자립 돋는 등
정서·문화적 교류로 동질감 가져야

#. 20대 여성 A씨는 무슬림 남성을 떠올리면 무자비한 성폭행 영상을 떠올린다. 그는 유럽에서 자행된 난민범죄의 영상을 페이스북에서 보고 난민을 향한 공포감이 커졌다고 했다. 지난 8월 벌어진 제주도에서 벌어진 여성 실종 사건에도 그는 사인이 밝히기 전까지 난민들에 의한 범죄라고 믿었다고 했다.

올해 국제난민의 제주도 유입이 늘어나면서 ‘제노포비아(Xenophobia·이방인에 대한 혐오현상)’가 확산되고 있다.

일각에선 이같은 공포 심리를 ‘무지(無知)의 공포’라며 비판하고 있다. 시민단체는 외국인이 솔아져 들어오며 국가 간 장벽이 낮아지는 국제 정세에도 우리는 이 같은 변화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성숙되지 못했다고 지적한다.

하지만 심리학 관점에서 인간이 ‘외지인’에게 갖는 공포는 쉽게 이성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자연현상이란 연구결과가 있다. 실제로 A씨에게 “자동차 사고로 당신이 죽을 확률에 비해 예멘 난민에게 살해될 위험은 0에 가깝다”라는 설명에도 그는 자신의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심리는 적절한 시간상의 직·간접적 경험에서 가장 예민하게 움직인다고 설명한다. 특히 근거없이 공포감을 해소하는 실마리는 ‘공감’이



키친노마드가 열고 있는 행사 중 하나인 노마드의 식탁은 난민들이 세계 각국의 스토리가 담긴 가정식을 선보이는 월 정기 이벤트다. 사진은 지난 6월 개최된 노마드의 식탁의 행사장에서 난민과 일반시민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피난처



국제난민의 제주도 유입이 늘어나자 이를 반대하는 ‘제노포비아’ 현상이 국내에서 확산되고 있다. 사진은 제노포비아에 대항하는 시위에서 한 남성이 ‘EVERYONE IS A FOREIGNER SOME WHERE(모두는 어디선가 또 다른 이방인이다)’라는 피켓을 들고 시위하고 있다.

/pathos

라는 정서적 교감이라고 제언한다.

◆ 제노포비아=‘감정적 반응’

실제로 여론조사 전문기업 두잇서베이 가 3867명을 대상으로 ‘난민과 인권, 그리고 우리의 삶’을 주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이슬람계 난민에 대한 부정적 시각이 58.2%로 높게 나타났다.

또 앞으로 난민 수용이 늘어날 경우 치안(78.8%), 비용(77.2%), 문화·마찰(74.5%) 등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며, 응답자 10명 중 6명이 난민을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 가운데 절반 가량의 응답자가 입국 난민도 추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이 공동체 바깥에서 느끼는 위협은 실제보다 훨씬 크다고 지적한다.

실제로 지난 2012년 미국 뉴욕대학에서 발표된 논문에선 실험 참가자들에게 미국 뉴욕에서 멕시코의 멕시코시티까지 직선거리를 측정하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멕시코시티의 범죄를 미디어에서 많이 접한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뉴욕과 멕시코시티간 거리가 수백 마일 더 가깝다고 측정했다.

미네브라스카 링컨 주립대의 하스 정치 심리학 교수는 “인간의 감정적인 반응이 매우 강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것은 어렵다”며 “논리적으로 설득시키려고 하기

보다 감정이 가라앉도록 기다리는 것이 더 효과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정서적 교감이 우선

심리학자들은 난민 거부 반응은 감정적인 것으로, 이것을 통계나 논리적 반론으로 교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지적한다. 사람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선 ‘난민도 우리와 같은 인간이며, 도움이 필요하다’와 같은 정서적 교감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

실제로 자신이 공감할 수 있는 외지인과의 정서적 교류가 커지면 근거를 찾을 수 없는 공포심은 소강 상태에 들어선다.

‘눈에 띠는 희생자 효과’가 적합한 사례다. 극명한 통계 수치가 있더라도 숫자

의 나열이나 그래프보다 사람들의 공감을 얻는 데는 특정 피해자의 생생한 사례가 더 효과적이라는 뜻이다.

실제로 지난 2015년 9월 터키 해변에서 의사한 채 발견된 시리아 난민 어린이 아일란 쿠르디의 사진 한 장이 시리아 난민을 위한 기부금 모금 활동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월 미국의 연구기관인 디시전 리서치(Decision Research)가 적십자의 기부 현황 자료를 분석해 작성한 보고서에 따르면 쿠르디 사진 보도 이전까지 하루 1000건 미만이었던 기부금 접수 건수는 보도 이후 1만4000건으로 급증했다.

액수도 크게 늘어 보도 이후 일일 기부 금은 이전보다 55배 많은 21만730달러(약 2억5266만원)로 집계됐다. 두려움을 촉발하는 사례에 논리를 들이미는 대신 공감의 손길을 내민 것이다.

국내에서도 난민과 시민들이 정서적 교류를 진척시키는 캠페인이 등장하고 있다. 일례로 국제난민지원단체인 피난처가 유엔난민기구가 후원하고 있는 ‘키친노마드(Kitchen Nomad)’는 소울푸드(Soul Food·난민여성들의 스토리가 담긴 음식)를 통해 자립을 돋우는 프로젝트다. 현재 7개국 난민여성들과 일반시민이 고국음식과 라이프스토리를 나누는 소셜 다이닝 이벤트인 노마드의 식탁을 비롯해 케이터링, 쿠킹클래스 프로그램을 통해 난민들의 이야기와 재능을 한국사회에 전하고 있다.

피난처 관계자는 “키친노마드에서 시민들은 난민들이 요리한 음식을 먹고 그들과 심도있는 대화를 나누고 있다”면서 “난민과의 정서적 교류는 일반인이 그들과 공감대를 형성하며 차츰 그들과 동질감을 갖고, 문화적 공유를 하게 되는 소중한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유재희 기자 ryusoul91@metroseoul.co.kr



권기홍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앞줄 왼쪽 6번째)이 1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2차 위원회를 열고 위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동반위

다이소, 내년부터 학용품 ‘묶음판매’만 가능

생활용품점 다이소는 내년부터 초등학생용 학용품을 묶음판매로만 판매해야 한다. 2월과 8월에 신학기 할인행사도 할 수 없다. 두산인프라코어, 롯데마트, 현대건설, 한국미니스톱은 동반성장지수 등급이 한 단계 강등됐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0일 서울 반포동 쉐라톤 팔래스호텔에서 제52차 위원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다이소를 운영하고 있는 아성다이소는 대형마트인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더해 문구소매업 부문에서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추가로 포함됐다. 대형마트 3사의 경우 2015년 9월부터 초등학생용 18개 학용문구에 대한 묶음판매와 신학기 할인행사 중단이 권고돼 왔다.

이번에 새로 적합업종에 포함된 다이소는 일단 올해 연말까지는 기준과 같이 낱개 또는 묶음 판매를 병행하되, 내년부터

는 묶음판매로만 판매해야 한다. 다만 이 조치는 기존 대형마트의 문구소매업 적합업종 지정기간이 끝나는 내년 7월31일까지만 유효하다. 이에 따라 다이소의 경우 사실상 내년 1월부터 7월31일까지 7개월 가량만 이번 조치가 유효한 상황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본격 발효될 생계형 적합업종 특별법에 따라 문구소매업이 포함될 경우 추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반면, 관련 중소기업계가 제기한 엘리베이터 업종은 이날 회의에서 적합업종에 포함되지 못했다.

권기홍 동반위원회 위원장은 “대기업에 의한 중소기업의 구체적인 피해사실이 불명확한 데다가 적합업종을 지정한 중소기업단체가 위원회의 자료제출 요청에 대해 ‘미제출’ 및 ‘제출의사 없음’을 표명함에 따라 적합업종 지정 논의가 불가능해 회의를 통해 ‘반려’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1~8月 벤처투자액 1.8兆 회수… 역대 최대

기업공개 통한 회수금 대폭 증가

지식재산권 회수도 전년比 5배 ↑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한 데에 이어 8월까지 회수액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벤처생태계가 선순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10일 중소벤처기업부가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한국벤처투자와 공동으로 ‘2018년 1~8월 벤처투자 회수동향’을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올해 1~8월간 벤처투자 회수금액(투자원금+수익)은 1조 8578억원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2배 이상(107%)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벤처투자 원금 대비 약 2.4배(136%)의 수익을 올렸으며 지난해 동기(1.69배, 69%)보다 67%포인트 증가했다.

중기부는 그동안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후원하는 벤처정책과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세컨더리펀드 1조 5000억원과 M&A펀드 1조원이 조성됨에 따라 회수시장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분석했다.

올해 상반기 주세를 고려할 때 연말까지 2조 8000억원 정도가 회수될 것으로 예상된다.

입종별로 보면, 바이오·ICT 등 신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회수가 활발한 가운데 계



임 분야에 대한 장외거래가 많이 증가하며 지난해 전자·기계 등 전통적인 투자처에서 바이오와 ICT 등 신산업 분야로 회수 포트폴리오가 재편되는 모습을 보였다.

회수 유형별로 보면 M&A, 장외거래 등 다른 유형에 비해 기업공개(IPO)를 통한 회수금액이 크게 늘었다.

올해 1~8월 IPO를 통한 회수액은 5867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364억원) 대비 148.2% 증가했다. 114개사로, 전년 동기 대비 20개사가 증가했으며 1개사 평균 회수금액도 51억원으로 103% 늘어났다.

특히 제1호 테슬라요건(아이미실현요건) 상장기업 카페24(ICT서비스)가 올해 기업별 회수금액 중 가장 높은 1043억원을 기록했다.

또 바이오 기업들이 최근 본격적으로 IPO함에 따라 회수금액이 대폭 증가하며 기업별 회수금액 2~5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M&A를 통한 회수액은 589

억원으로, 지난해 동기(265억원) 대비 122.3% 증가했다. 업체 수는 22개사로 6개사가 늘어났고, 평균 회수금액도 26억 8000만원으로 약 61% 증가했다.

장외매각(주식+채권)을 통해서는 지난해 동기(4852억원) 대비 99.5% 증가한 9677억원을 회수했다.

장외 주식매각을 통한 회수액은 8596억원으로, 지난해 동기(4044억원) 대비 112.5% 증가했으며 특히 텐센트가 블루홀 장외주식을 대량으로 매수(회수금액 2387억원)해 게임 분야가 700% 이상 증가했다.

또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등 장외채권을 통한 회수액은 108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807억원) 대비 33.8% 증가했다.

끝으로 영화, 전시, 공연 등 프로젝트 투자비 회수액은 1641억원으로, 지난해 동기(1157억원) 대비 41.8% 뛰었다.

전통적인 프로젝트 투자처인 영화의 회수금액이 2년 연속 69%를 차지했고, 방송·게임·지식재산권이 작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지식재산권 분야의 회수금액은 68억원으로 작년 12억원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는데 ICT 및 바이오 분야가 87%를 차지해 신산업분야 특히에 대한 회수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호 기자 bada@